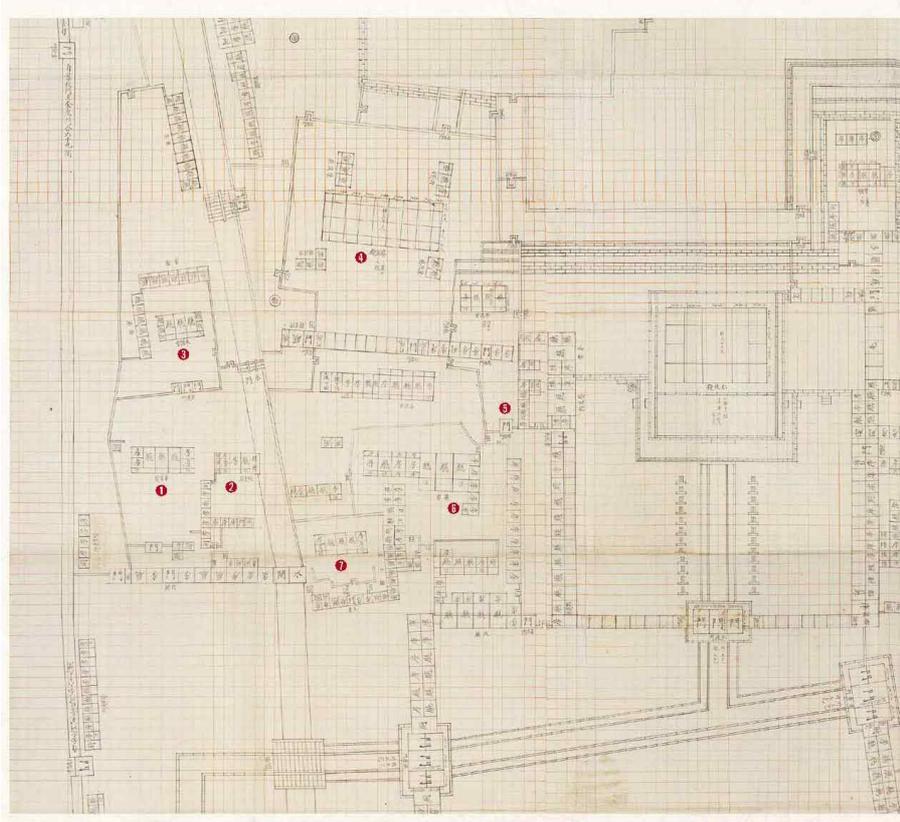


(붙임)

사 진 자 료



<동궐도상의 궐내각사 권역>



궐내각사는 '궁궐 안의 관아'라는 뜻으로 대신들이 궁에 들어와서 일하던 관청이 있던 지역이다. 대부분의 관청은 궁궐 바깥에 있었지만, 임금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업무를 가진 관청은 특별히 궁궐 안에 세워졌다. 궐내각사는 인정전의 동쪽, 서쪽, 남쪽에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인정전 서쪽 지역의 궐내각사는 2004년 말에 복원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❶ **규장각(奎章閣)**
규장각은 전조가 즉위한 1778년 역대 왕의 시문과 글씨 등을 보관하기 위해 창덕궁 후원에 건립되었다. 이후, 규장각의 부속 관청인 '이문원'이 궐내각사 지역에 지어지고 후에 '규장각'으로 불리게 된다.
- ❷ **검서청(檢書廳)**
검서청은 규장각의 부속 건물로 검서관이 서적을 점검하고 필사하는 곳이다.
- ❸ **봉모당(奉謨堂)**
봉모당은 규장각의 부속 건물로, 역대 왕들의 유품을 보관하는 곳이다.
- ❹ **선원전(繕源殿)**
선원전은 궁궐 안에 역대 왕의 초상화인 어진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 ❺ **예문관(藝文館)**
예문관은 임금의 말이나 글, 명경인 전교(傳敎), 관직의 임명장인 사경서(辭命書)등을 작성하였다. 예문관 관원 중에는 조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실을 기록하는 사관이 있었다.
- ❻ **약방(藥房)**
약방은 내의원(內醫院)으로 궁중의 의약을 담당하고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었다.
- ❼ **옥당(玉堂)**
옥당은 홍문관(弘文館)으로 유교 경전을 관리하고 문장을 처리하며 왕의 자문에 응하던 기관이다.

<관람동선 - 규장각-검서청-봉모당·책고-선원전-약방-홍문관(옥당)>



<검서청 누마루에서 바라본 정경>



<궐내각사 전경>